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대형사건 사고’의 근원적 해법은?

### 참다운 인간성 회복만이 유일한 대안

오늘날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는 마치 지옥의 형벌과 같은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참상이 각 국가마다 법과 제도가 약하고 허술해서 나타난 것인가? 얼핏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 하나 오랜 세월을 통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강력한 통제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범죄는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법의 통제를 교묘히 피해 극성을 부린다.



낮은 데로 흐르는 물은 최고의 선을 상징한다

#### 인간성 회복 절실히 요구돼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보듯 ‘관피아’로 지칭되는 부정과 비리의 연결고리는 그 산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그로 인하여 정말로 중요하고도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무참히 희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안전 무방비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도 근원적인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는 정치를 잘하고 법과 제도를 강력한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참다운 인간성 회복이라고 본다. 현재 인류의 불행은 참다운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음으로 해서 벌어지는 현상이

다. 두루 다 아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인간 대다수가 삶의 목표를 부와 권력의 쟁취에 두고 있다. 우리가 볼불 안 가리고 아주 열심히 쟁취하고 있는 부와 권력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협한 상황으로 자꾸 내몰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생의 목표와 삶의 가치관은 곧바로 참다운 인간성을 무참히 짓밟고 서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가 이러한 참다운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여야 할까?

####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첫째, 모범을 보이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올바른 행실과 모범을 보이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그들을 본받게 되어 이 사회가 저절로 인간성이 회복된다.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

국회의원과 검찰 사법부 등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물론 모범의 가치관은 생명 존중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윗물이 너무 더러운 구렁물이 되어 있다. 보고 배울만한 것이 없다. 공직자 청문회에서 재산을 불리고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자가 거의 없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리더들이 생명의 가치를 부와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뺏속 깊이 느끼고 그러한 가치관 아래서 행동하여야 한다. 생명을 무엇보다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려면 인간의 생명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생각을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 아래서만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상과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대로 된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다.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정의 어른들이 자녀를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시켰다. 맛있는 것만 먹으려는 아이를 훈계하기도 하면서 예절을 가르쳤다.

그러나 지금은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진 지 오래다. 부모는 돈과 명예를 좇아 자녀와 얼굴을 대하고 대화할 시간조차 없다. 올바른 사회는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건설된다.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인간이란 모든 사람을 내 귀한 상전처럼 하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인간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모든 부모들도 생명을 최고로 존중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생명존중의 가치는 영생의 신념이 뿌리내려야만 가능하다.

#### 먼저 영생의 가치관을 가져라

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사상의 관념 아래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어 온갖 인간의 불행의 씨앗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않은 가운데 외치는 ‘생명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자’는 운동은 공염불이요 허공에 외치는 부질없는 구호에 그치고 만다. 입으로만 생명 존중을 외치는 것은 제사(생명존중)에는 관심

#### 구도의 길

### 자신을 개똥으로 여겨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많이 겪는다. 대학 시절 공부 못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팍 상한다. 더욱이 그 친구의 남편이 나 부인까지도 훨씬 나은 경우에 울화가 치미기까지 한다. 내가 대학 다닐 때에는 훨씬 나았는데’ 하고 자위해 보지만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다.

군대나 직장에서는 훨씬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이다 보니까 윗사람이 특하면 자존심을 짓밟는 언행을 한다. “김 대리는 삼류 대학을 나와서 그런가. 왜 일이 이렇게 서툴러” 그 말을 듣는 순간 확 열이 올라온다.

이처럼 자존심을 건드리면 선(善)이 나오지 아니하고 악(惡)이 나온다. 아무리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자존심만 건드리면 화를 내거나 신경질이 폭발한다.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일방적인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살인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자존심은 자신 속에 들어있는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존심 없이 어떻게 살아’라고 투덜거린다. ‘넌 자존심도 없어’라고 스스로를 뉘세운다.

우라들이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자존심은 본래의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울화가 치밀고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본래의 마음은 청정하고, 편안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인데 자존심이 있으면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우쭐대고, 나쁜 일에는 열을 받고, 침울해지기도 한다.

구도의 길에서 제일 먼저 없애야 할 존재가 바로 자존심이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자존심을 없애려면 자신을 개똥으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또한 누구든지 자신의 눈에 띄는 사람을 상전(上典)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다. 더 나아가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라고 가르치셨다. 상대방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상대가 아무리 험한 말을 하고,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할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는가. 자존심을 빨리 버려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청주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 우덕환 승사 촬영



청주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 우덕환 승사 촬영



숙소에서 내린 이슬성신 / 우덕환 승사 촬영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